

## 제주4·3장편서사시의 발화 전략과 항쟁 주체의 형성\*

김 연\*\*

### 차 례

1. 들머리: 문제 의식과 연구 대상
2. 발화 전략과 주체 형성
  - 1) 이산하 『한라산』: 선취된 집합 주체와 항쟁 서사의 가속
  - 2) 김명식 『한라산』: 지역 명명 정치와 집합주체의 지속
  - 3) 김경훈 『제주상사화』: 개인 서사와 공동체 표상의 재구성
3. 마무리: 발화 형식의 차이와 문학사적 함의

### 국문초록

본고는 제주4·3장편서사시를 기억과 추모의 재현으로 읽어온 기존의 경향을 재검토하고, 각 작품이 4·3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하며 그 과정에서 항쟁의 주체를 어떻게 전제하고 형성하며 재구성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장편서사시를 사건 재현의 형식에 한정하지 않고, 말

\* 이 논문은 2026년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4·3융합전공 지원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제주4·3연구소 특별연구원.

하기의 조건과 집합적 ‘우리’의 위치를 조직하는 발화의 장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은 이산하의 『한라산』, 김명식의 『한락산』, 김경훈의 『제주상사화』이다.

『한라산』은 집합주체를 발화의 출발점에서 선취하며 항쟁 서사를 가속하고, 『한락산』은 지역 명명 정치를 통해 4·3의 말하기 자리를 재배치하면서 집합주체를 지속시키며, 『제주상사화』는 개인 서사를 경유해 공동체 표상을 재구성함으로써 항쟁 주체 형성의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주4·3 장편서사시는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텍스트군이 아니라, 각 시대의 담론 환경과 기억정치 속에서 서로 다른 발화 전략을 통해 항쟁의 의미와 주체의 형상을 조정해 온 역사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통해 제주4·3 장편서사시를 한국 현대사 안에서 재위치시키고, 4·3 기억정치의 문학적 층위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제주4·3, 장편서사시, 항쟁 발화, 주체 형성, 집합주체, 공동체 표상

## 1. 들머리: 문제 의식과 연구 대상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의 연대기에서 지워진 목소리와 응축된 침묵 속에서 먼저 기억되었다. 공적 기록에서 배제되고 사적 기억에 봉인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침묵과 금기의 이름으로만 존재해 왔으며, 그 일부가 견힌 이후에도 이념적 낙인과 서술의 왜곡·축소는 공적 담론의 장에서 여전히 논쟁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집요하게 흔들어 온 문학적 형식 가운데 하나가 장편서사시였다. 그러나 장편서사시는 민중서사나 지역사적 기록으로 독해되어 왔을 뿐,

그 언어가 항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하며 어떤 주체를 호출하고 구성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충분히 제기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제주4·3을 다룬 장편서사시의 발화 장치가 항쟁의 주체를 어떻게 전제하고 형성하며 재조정하는지에 주목한다. 장편서사시는 사건을 재현하거나 기억을 보존하는 서술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말하기의 조건을 조직함으로써 ‘우리’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적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이 점에 착목하여, 본고는 4·3시문학 해석의 초점을 기억과 추모의 차원에서 발화 행위와 주체화의 과정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서사시는 한 집단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는 문학 장르로 이해되어 왔다.<sup>1)</sup> 서사시에 재현된 과거는 망각과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이야기이며,<sup>2)</sup> 이를 통해 공동체는 스스로의 과거를 인식하는 틀을 형성한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사회적 관계, 제도, 반복되는 이야기와 기념의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는 현재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사시는 집단 기억을 매개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며, 서사시에 재현된 집단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그대로 전승된 결과라기보다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정체성이 서사적 선택과 배열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sup>

1) 폴 리콤프르는 역사와 서사의 상호직조를 강조하며, 역사는 집단적 삶의 연속성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서 공동체가 과거를 현재화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서사시는 개인적 기억이 아닌, 사회적·집단적 조건 속에서 선택되고 배열한 과거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리콤프르의 ‘서사적 정체성’ 개념과 연결되며, 집단이 공유하는 과거 기억을 서사 형식으로 조직함으로써 스스로를 규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폴 리콤프르 지음, 변광배·정종윤 옮김, 『폴 리콤프르, 비판과 혁신』, 그린비, 2013, 174-184쪽 참조.

2) 장은영, 「서사시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에 관한 비교 연구-고은의 『백두산』과 리육의 『고향 사람들』, 『풍운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5집, 비교문화연구소, 2011, 338쪽.

3) 이는 서사가 언제나 ‘구성된 이야기’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해 미케 발

본고는 서사시에 형상화된 집단 정체성이 민족·국가, 지역공동체(제주), 텍스트 내부에서 구성되는 ‘우리’라는 다층적 범위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특히 제주4·3장편서사시에서는 이러한 범위들이 어떻게 겹치거나 어긋나는지가 항쟁 주체의 위치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서사시에 나타나는 민족적·집합적 관념은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조건과 동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시간 감각과 지향을 포함하는 장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주4·3을 다룬 장편서사시는 이러한 서사시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면서, 봉인되어 온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호출하고 배열함으로써 항쟁의 의미와 책임을 재구성한다. 장편서사시는 긴 호흡 속에서 사건과 인물, 장소와 목소리를 축적하며 개인적 경험을 집합적 기억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그 기억을 현재의 정치적·윤리적 질문과 접속시킨다. 이 과정에서 항쟁은 과거의 사건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새롭게 의미화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항쟁 발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sup>4)</sup> ‘항쟁

---

은 서사를 ‘사건, 행위자, 시간, 장소’가 선택되고 조직된 전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구성 과정이 항상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서사는 파블라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한 시대의 요구와 관점을 조직하는 담론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서사에 나타난 집단 정체성 역시 서사적 구성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미케 발 지음,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장 「파블라:성분들」 참조.

- 4) 기존의 4·3문학 연구는 주로 피해 기억과 트라우마의 재현, 국가폭력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윤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전제된 피해자, 민중, 운동 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구조를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말하기 행위 자체가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수행성 이론은 정체성과 주체를 선행하는 실체가 아니라 규범의 반복 수행 속에서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효과로 파악함으로써, 발화의 반복과 어긋남이 기존 질서를 비틀고 새로운 주체 위치를 개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고가 ‘항쟁 발화’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수행성 이론의 통찰을 4·3 장편서사시의 언어적·서사적 실천과 접목하여, 항쟁의 내용만이 아니라 항

발화'는 억압된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주체가 언어적 실천을 통해 자신을 구성해 가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체를 선행하는 실체로 전제하기보다 발화의 반복과 축적 속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수행성 이론이 제기해 온 주체 개념과 맞닿아 있다. 말하기는 규범과 검열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면서도, 그 질서를 교란하고 재배치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긴장 속에서 항쟁의 주체가 구성된다.

기존의 4·3문학 연구는 주로 기억, 증언, 트라우마의 재현, 국가폭력에 대한 고발과 증언의 윤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4·3의 역사적 상처와 그 지속성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장편서사시를 대상으로 항쟁을 말하는 언어가 어떻게 조직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를 전제·형성·균열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제시하지 못했다.<sup>5)</sup> 또한 개별 작품 분석에 머무는 경향이 강해, 서로 다른 시기와 담론 환경에서 쓰인 장편서사시들을 나란히 독해하면서 4·3 장편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시도는 부족했다.

한국 시단에서 장편서사시는 1980년대 이후 창작의 흐름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나, 제주 4·3 시문학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

---

쟁을 말하는 발화의 형식과 그 반복 속에서 집합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5) 제주4·3 서사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동운과 문지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동운은 이산하의 「한라산」을 초출본과 단행본(복원판)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작품이 4·3을 반미 인민항쟁의 관점에서 '운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는 동시에, 이념적 강조와 사실 재현의 한계를 함께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문지희는 「한라산」을 1980년대 민족해방 담론과 4·3 기억투쟁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고, 필화 사건 이후 복원판과 개정판을 거치며 작품의 폭력 인식이 국가폭력 비판에서 보다 보편적인 폭력의 사유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동운, 「이산하 서사시 「한라산」 연구」,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문지희, 「이산하 시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사유-「한라산」에서 『악의 평범성』으로」, 『인문학연구』 제4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6.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편서사시라는 형식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가능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편서사시는 고전 서사시<sup>6)</sup>의 엄밀한 계승이 아니라, 1970~1980년대 군사독재와 민주화 운동이 중첩되던 시기에 민중과 민족, 역사적 ‘우리’를 말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다수의 인물과 사건, 장소와 시간을 함께 조직하는 서사적 형식으로 호출된 것이었다.

1970~1980년대 시인들은 전통 장르의 어조와 형식을 오늘의 삶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교로 전유하면서, 서정시의 짧은 호흡을 넘어선 서사적 구조를 모색했다. 신경림에게 민요가, 김지하에게 판소리가, 이동순·하일에게 가사가 미학적 자원<sup>7)</sup>이 되었던 것은, 전통 구비서사의 리듬과 반복 구조가 현대시 안에서 집단적 경험과 이야기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8)</sup> 당대의 리얼리즘 시와 민중시 담론은 사건성과 소설성을 지닌 ‘이야기하는 시’를 적극적으로 긍정했고, 서사시는 집회와 연설, 낭송과 결합되면서 공적 전달의 매체이자 운동의 언어로 작동했다. 때문에 당대 서사시의 활성화는 장르 내부의 필연이라기보다,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요청된 문학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대 서사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면서 장편서사시는 시단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제주4·3 시문학에서는 이 형식

6) 서사시라 부르는 장르는 고대 그리스 영웅서사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과 서사시를 모두 ‘운문에 의한 모방’으로 규정하며, 서사시가 장중한 운율을 사용해 고상한 행위를 노래하고 무대 연기 없이 말(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양식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서사시는 청중 앞에서 낭송되는 바드의 노래를 전제로 하며, 길이와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는 비극과 달리 시간과 분량의 제한 없이 영웅적 행적과 집단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장르로 설명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참조.

7) 김준오, 『현대시의 방법론과 모더니티』, 새미, 2009, 401쪽.

8) 당대 대표적 서사시로는 1970년대 초반 김지하의 『오적』과 신경림의 「농무」, 1970년대 중후반 이후 송수권의 『달궁 아리랑』과 고정희의 마당굿 서사시, 1980년대 이후에는 고은의 「백두산」과 이산하의 「한라산」을 들 수 있다.

이 예외적으로 계승·갱신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 장편서사시는 고전 서사시의 엄밀한 계승 개념이 아니라, 자유시의 리듬 위에서 역사적 사건과 집합적 목소리를 장편 구조로 조직하는 혼성적 현대시 형식을 가리키는 작업 개념으로 사용한다.

4.3 담론의 변천은 이러한 형식의 지속과 긴밀히 연결된다. 1980년대 ‘공산 폭동’ 규정과 이에 맞선 민주화의 언어, 2000년 특별법 제정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피해와 추모 중심으로 재편된 담론, 그리고 4·3 70주년을 전후로 전국화된 기억운동과 화해·상생·평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장편서사시는 각 시기마다 상이한 발화 전략과 구조를 통해 4·3의 의미와 항쟁의 주체를 재구성해 왔다.<sup>9)</sup> 다시 말해 4·3 담론의 변천은 사실에 대한 해석의 축적이 아니라 각 시기마다 무엇이 ‘참’으로 승인되었는지, 어떤 언표가 공적 언어의 지위를 획득했는지를 둘러싼 진리 체계의 재편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0)</sup> ‘발화 위치’와 ‘말

9) 제주4·3 담론의 변천은 크게 다섯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1948년 이후 미군정·이승만 정권 주도로 '공산 폭동'이 공식 담론으로 형성되고 유족·생존자의 기억이 사적·비공식 영역으로 밀려난 시기, ②1987년 민주화 이후 항쟁론·양민 학살론이 부상하며 4·3이 공개적 정치·사회 의제로 진입한 진상 규명 운동기, ③1999년 특별법 제정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공표 및 대통령 사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공식 진리 체계로 승인된 제도화기, ④2000년대 이후 평화공원·기념관 조성과 함께 화해·상생이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식 표어로 자리 잡으면서 폭력의 계급·젠더·지역적 차이를 희석한다는 비판이 싹튼 시기, ⑤2018년 70주년을 전후로 화해·상생·평화 담론의 공고화와 이에 맞선 비판적 기억투쟁이 병존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국면의 담론은 사건의 명명 방식과 주체의 위치 설정, 결부되는 감정과 가치의 배열을 통해 경합해 왔다. 이는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2005와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을 참고해 정리한 것이다.

10) 푸코는 『담론의 질서』에서 담론이 금지·분할·진위의 대립을 통해 통제되며, ‘진리 의지’가 어떤 발화만을 참된 담론으로 승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식의 고고학』과 『말과 사물』에서, 한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지식의 가능 조건과 담론 형성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지식의 변화가 인식의 축적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진리 체계의 재편임을 보여준다. ‘진리 체계’라는

해질 수 있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재조정되어 온 이 역사 속에서,<sup>11)</sup> 장편서사시는 공적 진리 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경험과 시간을 서사 형식으로 배열하는 기억투쟁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본고는 이러한 경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주4·3장편서사시를 발화 행위와 주체화 과정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4·3을 장편서사시 형식으로 다룬 사실상 유일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 이산하의 『한라산』(1987/2003/2018), 김명식의 『한라산』(1992), 김경훈의 『제주상사화』(2012)를 분석함으로써, 선취된 집합주체를 가속적으로 호출하는 발화, 지역 명명 정치를 통해 집합주체를 지속시키는 발화, 개인 서사를 경유해 공동체 표상을 재구성하는 발화라는 세 가지 양상이 어떻게 대비·접속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수난사·추모 중심의 해석이 축적해 온 성과를 전제하면서도, 장편서사시가 역사적 사건을 책임과 실천의 윤리, 그리고 동시대 공공기억의 재구성 방식으로 조직하는 과정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제주4·3에서 예외적으로 계승·갱신되어 온 장편서사시의 실천을, 4·3담론의 변천 속에서 발화 방식과 주체 형성이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역사적 실천으로 위치 짓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 2. 발화 전략과 주체 형성

제주4·3을 다룬 장편서사시들은 동일한 사건을 공유하면서도, 사건

---

표현은 후대 정리된 개념이지만, 그 골자는 푸코의 진리·권력·담론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2023.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참조.

11) 여기서 '발화 위치'는 어떤 발언이 '담론적 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사회적 자격과 맥락을 의미한다.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83쪽, 2장 4절 '언표행위적 양태들의 형성' 참조.

을 말하는 방식과 그 말하기가 만들어내는 주체의 형상에 있어 차이를 드러낸다. 이 차이는 작품 내부의 미학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 각 작품이 놓인 담론 환경과 역사적 국면-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장편 서사시가 사건을 말하기 위해 선택하고 배열한 발화 장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산하의 『한라산』, 김명식의 『한라산』, 김경훈의 『제주상사화』는 모두 4·3을 집합적 ‘우리’의 역사로 서술하지만, 그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선취되거나 형성되고, 끝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주체는 이미 확정된 화자나 인칭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사와 명명, 시간 배열과 정동의 리듬, 서정과 서사의 배치를 포함한 발화 장치들이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거나, 끝내 완결되지 않은 채 긴장 상태로 남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 작품의 발화 전략을 분석하는 작업은 각 작품이 4·3을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인 동시에, 그 말하기가 어떤 역사적 조건 위에서 가능해졌으며 어떤 주체를 구성하거나 배제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1절에서는 헌사와 서시, 정동의 역치, 반제·민족해방의 역사 프레임을 통해 선취된 집합주체를 가속적으로 호출하는 『한라산』의 발화를, 2.2절에서는 지역 명명 정치를 통해 4·3의 말하기를 재배치하면서 집합주체를 지속시키는 『한라산』의 발화를, 2.3절에서는 개인 서사를 경유해 공동체 표상을 재구성하는 『제주상사화』의 발화를 각각 분석한다. 이 세 양상을 나란히 독해함으로써, 제주4·3장편서사시가 담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화의 방식을 갱신하며 항쟁의 의미와 주체의 형상을 조정해 온 역사적 실천의 궤적을 밝히고자 한다.

#### 1) 이산하 『한라산』: 선취된 집합주체와 항쟁 서사의 가속

이산하의 『한라산』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장편서사시로서, 판본의 변화를 거치며 발화 장치들을 재배열하고 그 과정에서

4·3인식의 좌표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온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1987년 『녹두서평』 창간호에 발표된 초판<sup>12)</sup>, 2003년 단행본<sup>13)</sup>, 2018년 증보판<sup>14)</sup>은 각각 제주4·3을 둘러싼 공적 말하기의 조건이 변화하는 국면과 겹치며, 집합 주체로서의 ‘우리’가 형성되는 방식과 속도를 다르게 조직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발화의 출발점에서 선취되어 급속히 호출되는가, 긴 서사적 호흡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축되는가, 혹은 역사적 결절점의 재배치를 통해 다시 갱신되는가에 따라 판본별로 상이한 리듬과 밀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라산』은 초판에서 형성된 발화 장치를 이후 판본들에서 거의 변형 없이 유지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기본적인 말하기 조건을 고정한다. 서두에 배치된 “햇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구절은 1987년 초판에서 제시된 이후, 2003년 단행본과 2018년 증보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다. 이 구절은 4·3을 통곡과 분노라는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사건으로 설정하며 독자를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정동의 주체로 위치시킨다. 독자는 텍스트에 진입하는 순간 4·3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햇바닥을 깨물’만큼의 통증과 ‘발가락을 자를’만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정동의 역치’<sup>15)</sup>를 통과하도록

12) 1987년 『녹두서평』에 수록된 「한라산」 발행 연도는 1986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가 아닌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극심한 출판 검열로 인해 문제가 될 만한 책들은 실제 출간 연도보다 한 해 앞당겨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편법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세상에 나온 책이라는 형식을 빌려 검열을 피하고자 한 출판계의 대응이었다. 이 내용은 2025년 11월 8일 <<제18기 4·3아카데미>>, <이산하 시인의 시인이 만난 제주4·3> 대담 내용에 근거한다.

13) 이산하, 『한라산』, 시학사, 2003.

14) 이산하, 『한라산』, 노마드북스, 2018. 본고에서 인용 시에는 출간 연도와 해당 페이지만 명기한다.

15) 여기서 말한 ‘정동의 역치’는 정동 이론에서 말하는 개념을 응용해 쓴 표현으로, 어떤 집단이나 주체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동적 강도. 에너지의 문턱값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정동은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배열 속에서

요구받는다. 이 정동의 요구는 발화의 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작동하며, 이후 전개될 집합 주체 형성의 속도를 가속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정동의 설정은 이어진 헌사를 통해 집합 주체의 선취로 이어진다. “제주도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산하 구석구석에서/ 민족해방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해 가신 모든 혁명전사들에게 이 시를 바친다!”는 서사의 헌사는, 발화의 기원을 개인과 특정 피해자의 경험에 두지 않고, 국가 공식 역사 속에서 ‘빨치산’이나 ‘공산폭도’로 낙인 찍혀 배제되어 온 이들을 말하기의 원점으로 재배치한다. 이 헌사는 4·3을 말하는 주체를 집합적 전사들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서사 전개의 결과가 아니라 발화의 선행 조건으로 설정한다. 1987년 초판 이후 2018년 증보판에 이르기까지 이 헌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한라산』이 판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화 주체를 일관되게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집합적 주체로 고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서두에서 정동과 헌사를 결합해 발화의 조건을 설정한 『한라산』은, 4·3을 해방 직후의 국지적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국주의·식민지·분단으로 이어지는 100년이 넘는 폭력의 궤적 속에 위치시킨다. 세 판본의 서시는 모두 “지금으로부터 어언 120여년 전”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1987년과 2003년의 판본은 “80년의 모진 세월이 흐른 1945년 불멸 여름”, 해방의 날로 이어지지만, 2018년 판본은 120여년에 걸친 제국주의 폭력 구조의 결과로 맥락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발생하며, 동시에 시간 속에서 축적·변화하기 때문에 역사적이다. 따라서 정동은 역사·지리·정치적 질서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기능한다. 현실 속에서 정동은 주체, 정치, 예술, 노동 등과 만나며, 사회적·공간적·관계적 맥락에 따라 변주한다. 즉, 주체와 형식의 만들어짐은 정동·시간·장소가 얽혀 있는 실천과 관계의 장 속에서 형성된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몸과 문화·윤리·정치』, 갈무리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2015, 30-50쪽 참조.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가 세계의 약소국들을 침략해/ 식민지쟁탈전을 벌이던 약육강식의 19세기 후반/ 프랑스 해적선이 대동강을 붉은 피로 물들이고/ 미국 해적선이 먼 훗날 한국현대사의 무덤을 파듯/ 평양의 왕릉을 도굴해 조선국왕의 수염을 뽑고/ 일본이 다시 강화도까지 침략해 쇠국의 빗장을 부수자/ 이제 조선반도는 영국, 독일, 러시아까지 몰려와/ 마지막 동북아의 교두보로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 서양제국주의 맹수들에게 온몸을 물어뜯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에 이빨이 박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2018, 7-8쪽)

서사적 시간의 지평을 19세기 후반까지 확장하는 이 전략은, 4·3을 ‘한 시기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억압과 저항의 누적 속에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온 민족해방투쟁의 한 국면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집합주체 ‘우리’는 피해 공동체나 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고, 제국주의와 분단 체제에 맞선 민중·혁명전사의 연속체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동과 역사 프레임은 본문 곳곳에서 다시 호출된다. 서사에서 제시된 ‘헛바닥을 깨물 통곡’, ‘발가락을 자를 분노’는 4·3 항쟁의 구체적 서술 속에서 재등장하며, 집합주체의 행로를 규정하는 시적 장치로 재맥락화한다. 여기서 ‘제주도의 혁명전사들’은 서사에서 ‘한반도의 산하 곳곳’에 흩어져 있던 혁명전사와 연결되면서, 4·3의 주체를 이미 형성된 항쟁·민족해방 주체의 일부로 편입한다. 집합주체는 개별 인물의 내적 갈등이나 서사적 성장 과정보다, 정동의 역치와 명명, 공간·역사 프레임을 결합한 발화를 통해 선취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취된 집합주체는 학살의 장면들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된다.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쓰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쓰았다./ 학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018, 12쪽)

소 돼지 먹까듯이/ 다리 아래 개 도살하듯이/ 그렇게 때려죽이고 고

문해 죽이고/ 찢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생매장하고 차  
바퀴에 깔려 죽이고 목 졸라 질식시키고/ 바다와 하천에 돌을 던 채 수  
장시키며/ 죽이고 또 죽였건만/ 섬은 끝내 정복되지 않았다. (2018, 74  
쪽)

시는 ‘우리’와 ‘그들’의 대립을 명료화하며 전투와 학살의 윤리적 비  
대칭을 단호하게 가르고, 이어 국가폭력의 실행 주체를 지방 권력이나  
우익에 한정하지 않고 미군정의 구조적 책임과 연결한다. 『한라산』의  
서사는 이처럼 개별 인물의 내면이나 갈등에 체류하지 않고, 학살의 장  
면들을 연쇄적으로 배열하면서 항쟁의 윤리를 확정한다. 그 결과 독자  
는 사건의 복잡성 속에서 머뭇거리기보다, 이미 호출된 집합주체의 편  
에 서서 서사를 따라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라산』의 항쟁 서사  
는 느린 형성의 서사가 아니라 가속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라산』은 4·3을 수난사나 피해자의 서사로 위치시키지 않고 ‘섬은 끝끝  
내 정복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항쟁의 서사로 전환한다. ‘항쟁의 불꽃’  
장에서 시는 학살의 과잉 폭력을 나열하면서도, 그 폭력 속에서도 꺼지  
지 않는 저항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시는 주민 전체를 ‘빨치산이나 그  
동조자’로 간주한 국가폭력의 논리를 뒤집어, 바로 그 섬과 땅을 항쟁의  
기반이자 주체의 뿌리로 재명명한다. ‘자신들의 땅’ 위에서 벗의 시체를  
묻고 피를 닦으며 싸움을 계속하는 행위는, 집합주체가 공간·기억·정  
동을 매개로 다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이처럼 시간의 지평을 길게 확장하면서도, 텍  
스트의 종결은 사건의 종료나 화해의 합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한라산』은 문상길, 손선호 하사의 처형 장면으로 서사를 닫음으  
로써, 4·3의 결말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으로 통합하지 않은 채  
폭력 체제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과 그 균열이 다시 처벌되는 지점을 마  
지막에 고정한다.

“22살을 최후로 이 문상길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염원은 매국노의 단독정부와 미군의 지휘 하에서 조선인민을 학살하는/ 조선군대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이제 여러분들과 이별을 고합니다./ 조국통일 만세-!/ 제주 빨치산 투쟁 만세-!” (2018, 102쪽)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국가 서사에서는 ‘상관 살해’, ‘군법회의 사형’의 표상으로 기억되는 한편, 4·3 기억정치 of 장에서는 도민 학살을 저지하려 명령 체계 내부에서 반기를 든 인물로 재호명되어 온 양가적 위치에 놓여 있다.<sup>16)</sup> 『한라산』이 바로 이 경계적 인물을 결말부에 배치한 것은, 집합 주체 ‘우리’를 피해 공동체나 항쟁 주체에 한정하지 않고 폭력 체제의 내부에서조차 도민 학살을 멈추기 위해 상관 암살을 감행했던 군인의 저항과 그 좌절까지 포괄하는 정치적 주체로 구성하려는 시적 선택으로 읽을 수 있다. 나아가 2018년 증보판에서 문상길의 죽음 장면에 미군 장교 하우스만이 개입하는 방식은, 이 처형을 개별 장교의 일탈이나 군 내부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고, 미군정과 국방경비대, 분단·냉전 권력이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긴장과 균열의 지점으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판본의 변화는 서사적 수정·보완의 목적을 넘어, 가해/피해/저항의 경계를 둘러싼 4·3의 책임 구조를 재서술하고 폭력 체제 내부의 균열까지 ‘우리’의 역사로 끌어안으려는 시인의 역사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속은 『한라산』의 힘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집합

16) 문상길·손선호에 대한 평가는 국가·보수 진영과 4·3단체와 진보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 국가·보수 진영은 ‘남로당 프락치이자 암살범’으로 규정, 국군 1호 사형수이자 공산계 장교·사병에 의한 상관 암살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핵심이다. 반면 4·3단체와 진보 진영은 도민 학살을 막으려 한 의인이자 저항 주체로 ‘반민족적 강경 진압에 맞선 의로운 저항자’로 평가한다. 이에 제주4·3도민연대·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제주통일청년회 등은 2000년대 이후 매년 문상길·손선호 등 9명에 대한 진혼제를 봉행한다.

주체가 이처럼 강하게 선취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로 이행하는가의 세밀한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전사로 호명된 집단이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는가의 문제에 가깝다. 김동윤이 일찍이 지적했듯, 이 서사시는 4·3을 반미 인민항쟁의 관점에서 운동적으로 형상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는 동시에, 이념적 강조와 사실 재현의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sup>17)</sup> 또한 2018년 복원판 저자 후기에도 시인은 초판과 단행본에서 ‘반미’와 ‘북조선 문제’에 대한 대목을 삭제하거나 완곡하게 수정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했다고 밝혔<sup>18)</sup>, 『한라산』의 발화 구조는 애초부터 반제·민족해방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을 확인시킨다.

이 점은 각 판본의 발행 시기와 4·3 담론 환경을 함께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1987년 『녹두서평』에 실린 초판은 폭동론이 지배적이던 권위주의 말기에, 민주화 운동의 언어를 통해 4·3을 ‘제주4·3항쟁’으로 재명명하는 과감한 개입이었다. 2003년 단행본은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 보고서 공표 직후, 4·3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공식 규정되는 국면에서 항쟁의 정동과 침묵의 구조를 함께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2018년 복원판은 70주년을 기점으로 화해·상생·평화 담론의 공고화 시기에, 삭제되었던 반제·반미 대목을 다시 복원함으로써 제도적 기억이 안정화하는 시점에 항쟁 주체의 급진성을 재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판본별 조정 가운데서도 2003년과 2018년 판본은 발화 전략이 보다 분명하게 재편되는 지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2003년 판본은 항쟁의 정동과 집합 주체의 형성을 유지하면서도, 4·3이 말해지지 못했던 조건을 서사 내부에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침묵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구조 자체를 가시화한다. 보도와 특파원의 차

17) 김동윤, 앞의 논문 참조.

18) 이산하, 『한라산』, 2018, 116쪽.

단, ‘사건’과 ‘인민항쟁’이라는 병치 명명, 뒤늦게 발견되는 해골, 공포와 자기 검열이 일상화된 마을의 풍경,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폭력의 흔적들은 말의 출입이 제도·일상·지식의 층위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로써 2003년 판본은 항쟁을 노래하는 서사에서 항쟁이 침묵 속에 봉인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조건을 텍스트 내부에 삽입하며, ‘우리’의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동과 동시에 그 발화를 가로막아 온 담론·제도적 장치를 함께 가시화한다.

반면 2018년 증보판은 이러한 은폐 구조의 인식을 전제한 상태에서 항쟁의 발생과 전개를 설명하는 인과의 배열을 보다 명확하게 재조직한다. ‘오라리 방화 사건’과 ‘5·10 단독선거 거부투쟁’을 각각 독립된 절로 전면화한 것은, 4·3을 우발적 폭력이나 사후적 의미화된 비극으로 환원하지 않고, 축적되어 온 정치적 선택과 집단적 실천의 연쇄 속에 위치시키려는 의도라 사료된다. 이를 통해 집합 주체 ‘우리’는 희생 이후에 구성되는 추모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단과 국가 형성의 국면에서 스스로를 형성하며 선택해 온 정치적 주체로 재규정된다.

이러한 판본별 조정은 『한라산』의 발화 전략이 고정된 이념적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4·3 담론 환경 속에서 집합주체를 형성하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재사유해 왔음을 보여준다. 1987년 폭동론에 맞선 항쟁 선언에서 출발하여, 2003년 침묵의 구조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거쳐, 2018년 반제·민족해방의 급진성을 재복원하기에 이르는 이 궤적은, 『한라산』이 담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며 항쟁 발화의 조건을 갱신해 온 실천적 텍스트임을 입증한다.

## 2) 김명식 『한락산』: 지역 명명 정치와 집합주체의 지속

김명식의 『한락산』<sup>19)</sup>은 “제주에서는 한라산을 한락산으로 부릅니다.”

19) 김명식, 『한락산』, 신학문사, 1992.

라는 주석과 함께 ‘한락산’을 표제로 세운다. 이는 지명을 둘러싼 발화의 주권을 국가어의 중심에서 섬 내부의 언어로 돌려놓는 행위로, 여기서 ‘한락산’은 4·3의 말하기가 출발하는 자리를 재배치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4·3은 행정·법률 언어의 틀에 수렴되기보다 제주어가 먼저 작동하는 장소적 발화의 자리로 되돌아오고, 이렇듯 지명에서 시작된 재명명은 곧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명명 정치의 방향을 예고한다.

시집이 발행된 시점은 1992년 4월 3일이다. 이 시기는 4·3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 공표 이전으로, 법·제도 차원에서는 여전히 ‘공산 폭동’과 같은 국가 어휘가 강하게 잔존하던 반면, 민주화 이후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4·3의 기억과 명명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과도기였다. 이런 담론 환경 속에서 『한락산』은 서문을 “제주4·3민중항쟁은 일본제국주의가 물러난 후 이 땅에 들어온 제국 아메리카의 한반도 침략정책에 대하여 봉기한 제주도 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이다.”라는 문장으로 열고, 추천의 글에서 역시 4·3을 “해방투쟁”, “민중해방사에 있어서 첫 번째 민중의 승리”로 규정한다. 이는 당시로서는 드문 방식의 명명이었으며, 국가의 언어를 경유하지 않고 ‘민중’과 ‘해방’의 어휘로 먼저 말하기를 조직하는 지역 발화의 형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부의 말하기가 스스로의 주체어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중’은 전통적으로 ‘다수성’과 ‘종속성’을 나타내는 기표였으나, 1920년대 대중화된 이후 ‘정치 주체성’과 ‘저항성’이라는 기의가 더해지면서 역사와 정치의 한 주체이자 저항의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개념적 전환을 겪었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반체제 지식인들이 협소하고 이론적인 ‘프롤레타리아’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민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용어는 사회운동적 함의를 띤 현재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된다.<sup>20)</sup> 다시 말해 ‘민중’은 피해 집단이나 하층 계급

20) 박선영 엮음, 박종우 옮김, 『민중의 시대』, 빨간소금, 2023, 10-11쪽.

을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억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전복할 능동적 주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는 이름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1980년대는 변혁론·혁명론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이에 따라 민중 개념과 변혁 개념이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민중이 변혁·혁명주체로 호명되는 담론적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시기였다.<sup>21)</sup>

이러한 개념사적 맥락을 참조할 때, 『한라산』이 4·3을 ‘제주4·3민중항쟁’, ‘제주도 민중의 해방싸움’, ‘민중해방사’로 반복해 명명하고, 주체를 ‘제주도민’보다 ‘제주민중’, ‘인민전사’, ‘한라의 후예들’이라는 이름으로 위치시키는 선택은 수사적 과잉으로만 축소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역사의 주인이란 (...) 민간중생(民間衆生), 즉 모든 살아 있는 생명들 사이에서 자기 주체적 기능을 다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이들을 “역사발전의 토대요, 변혁의 주체이며 (...) 나눔의 양식을 마련하는 생산자들”이라고 규정하는 진술은, ‘민중’을 역사 생산의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는 선언으로 읽힌다. 요컨대 이 시집에서 ‘민중’은, 4·3을 말할 자격이자 발화의 중심점이며, 지역 발화가 자신의 주체를 세우는 방식 그 자체로 기능한다. 이후 시 속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목소리가 초입부터 선취된 집합주체로 등장하고, 끝까지 ‘해방전사’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지속되는 구조 역시, 바로 이 같은 민중 개념의 수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명명 전략은 시적 장면을 조직하는 방식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한다. 「분노의 얼굴들」에서 해방은 ‘속 빈 만세소리’, ‘환각의 해방’으로 재명명되고, ‘제국-일본 히로히또’, ‘제국-아메리카의 탱크와 톱니바퀴’와 같은 표기는 지배의 주체를 응집된 블록으로 묶어 세운다. 특히 “총독부가 대사관으로/ 일본어가 미국어로/ 일장기가 성조기로/ 일군기지가 미군기지로”라는 치환의 연쇄는, 식민지배의 ‘종식’보다 점령체제의 ‘연

21) 강인철, 『민중, 저항하는 주체-민중의 개념사, 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171쪽.

속'을 부각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 연속 구조 속에서 주체는 '민심'이라는 '무기'를 품은 '한라의 전사들'이며 그들은 '파도가 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민중을 수동적 피해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몸과 힘, 운동의 형상으로 전면화하며, 4·3을 비극의 수난사로 위치 짓기보다 '승리'의 이름 아래 재배치하는 명명 행위 자체를 드러낸다. 시집이 4·3을 '민중 해방사'이자 '해방의 교과서'로, 주체를 '민중해방의 역사를 써낸' '제주 민중'으로 제시한 뒤, "해방의 새날이 밝아오면 전사들은 한라산으로 오르던 바로 그 길을 따라 한라산의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 당당히 우리들 앞으로 걸어오게 될 것"이라며 전사들의 귀환을 예고하는 대목 역시, 4·3을 패배의 종결보다 미완의 해방 서사 쪽으로 배치하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집합주체의 형성과정도 긴밀히 연결된다. 1부에서 "우리는 안다/ 우리는 분노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해방의 8·15는/ 제국-아메리카의 음모/ 침략도/ 수탈도/ 막아내지 못했다"가 이어지며, '우리'는 개별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결과라기보다 서사의 초입에서 이미 분노와 인식을 공유한 집합주체로 제시된다. 주체 형성의 과정은 압축되고, 반제·민족해방 서사의 '우리'가 곧바로 발화 자리로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집합주체는 정치적 주어로 선취된다.

이 선취된 집합주체는 이후에도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된다. 2부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에서 "선택은 해방전사 사명인 것이니/ 우리들은 다시 출발한다/ 선택의 이 길/ 항쟁의 길"과 같이 서사는 상실과 패배의 경험을 지나면서도 '다시 출발'하는 전사들의 결집을 강조한다. 반복되는 동사와 '사명'이라는 표현은 집합주체의 내적 불안이나 해체보다 지속과 재결집에 무게를 싣고, 그러한 점에서 시집의 '우리'는 후대 4·3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상처받은 개별 생존자의 형상과는 다른, 보다 단단한 해방전사의 집합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제주의 공간은 이러한 집합주체를 떠받치는 지리적 구조로 반복해서 호출된다.

우리는 한라산 이곳 저곳에/ 진지를 마련한다/ 대정지구-세미곶·남  
송악·군산·다래오름·산방산/ 한림·애월지구-셋별오름·노루오름·정  
물오름·눈오름/ 제주·조천지구-관음사·산천단·검은오름·어승생오름/  
중문지구-모라리오름·녹화오름·법정오름/ 남원지구-남이악·민오름/  
성산·표선지구-서월악·녹산봉·영추산·백약오름 (124쪽)

하귀·애월·한림·대정에서/ 중문·서귀·조천·신촌에서/ 45년 46년  
사이만 해도/ 강습소를 열어 발전의 역사/ 새 조국의 건설을 똑똑히 바  
라볼 수 있도록/ 조국의 해방정신을 배우고/ 가르친다 (43쪽)

『한라산』은 제주의 산과 오름, 마을 이름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데, 이러한 반복은 제주의 공간을 항쟁의 자리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한라산’이라는 표제가 생활세계의 산을 가리키는 명칭이면서 해방전쟁의 공간을 지시하는 이름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인용문과 같이 각 마을의 이름은 강습소와 연결되며, 일상 공간이 ‘해방정신’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로 재의미화된다. 이런 공간적·교육적 서술은 제주의 장소성을 지속적으로 호출하면서도, 그 장소를 삶의 세부 묘사에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항쟁과 자기통치의 윤리로 엮어낸다. 2부의 “인민위원의 우리들은/ 모두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지킨다/ 이 마을 지킨다/ 농토를 지킨다”와 같이 ‘이 땅’, ‘이 마을’, ‘농토’는 생활공간의 표지이면서 주권과 수호의 실천이 수행되는 자리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 구도 속에서 제주는 민중적 자기통치와 방어가 수행되는 전선으로 형상화되고, 지역성은 민족해방 서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으로 조직된다.

폭력을 둘러싼 명명에서도 이 방향성은 예각화된다. “작전명령은 오직 하나/ 학살/ 학살뿐”이라며 군사작전이라는 언어를 벗겨내고, ‘학살’을 직접 각인함으로써 ‘학살’을 사후적 관정이 아니라 사건을 지시하는 최초의 이름으로 제시한다. 이어 “살해 조종사/ 제국-아메리카/ 살해 집행자/ 이승만 집단”이라는 분절은, 책임의 층위를 ‘조종-집행’으로 갈라 세우며 폭력의 원인을 현장 실행자에게만 귀속시키지 않는다. 결국 4·3

을 둘러싼 말하기는 애도에서 책임의 배열로 확장되며, 그 책임 구조 속에서 민중은 다시 학살의 대상이자 항쟁의 주체라는 양가적 위치에 선다.

날아가는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울지 마라/ 몸은 비록/ 죽었어도/ 혁명  
정신 살아 있다// 우리는 산길을 걸으며/ 메아리 없는/ 혁명가를 중얼거  
린다/ 조용히 죽어간 전사들이/ 부르던 노래소리가/ 귓가에 쟁쟁히 들리  
어온다/ (...) / 인민전사들이 마지막 호흡처럼/ 신창지서를 공격/ 토벌대  
와의 전투에서/ 한 여자대원을 잃는다/ 제주바다 파도소리가/ 산을 덮는  
다/ 들을 덮는다/ 이슬처럼 사그라진 동지들의 발자취를 덮는다 (265쪽)

폭력과 책임의 구조를 정면으로 드러낸 뒤 시집은 말미에 이르러 위와 같은 장면을 배치한다. 시선은 처형과 학살의 정황을 배후에 둔 채, 귀에 남는 노래와 파도의 리듬으로 옮겨가며 전사들의 부재를 ‘혁명정신’과 노랫소리, 자연의 움직임 속에 스며든 잔향으로 처리한다. 약속된 귀환은 완결된 결말로 수렴되지 않고 애도와 기억, 자연의 시간 위에서 계속 유예되는 해방의 가능성으로 남는다. 그리고 집합주체는 폭력의 명명과 책임 배열을 통과한 이후에도 다시 호출되면서 동시에 종결되지 않는 형상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전략은 1992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리며 입체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국가가 ‘사건’이라는 관리 언어의 외피를 유지하던 시기에 『한락산』은 ‘제주4·3민중항쟁’이라는 명명으로 발화한다. ‘민중’은 국가가 지정한 피해 범주(희생자, 유가족)의 용어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스스로를 역사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 선택한 주체어이며, ‘민중항쟁’은 사건/항쟁의 병치가 제도화되기 이전, 기억과 언어가 지역 내부에서 선행적으로 조직되는 장면을 드러낸다. 동시에, 그 ‘민중’은 승리의 주체로 완전히 안착하지 못한 채, 학살과 흩어짐의 서사 속에서 그 형상이 끊임 없이 지연되고 분절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한락산』의 주체

형성은 강하게 선취되면서도 끝내 완결되지 않는 민중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락산』은 표제와 주석에서 제주 공동체의 언어를 전면에서 세우고 4·3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부르려는 욕망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 욕망은 제주 내부의 구체적 삶과 장소 감각을 세밀하게 풀어내기보다는, 민중·민족·해방의 서사 안에서 집합주체의 좌표를 공고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작동한다. 이 작품의 특수성은 그 지점에 놓여 있다. 지역 명명 정치가 집합주체의 자기 호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주체를 강한 민족해방 서사의 구조 속으로 다시 접속시키는 과도기적 구성을 드러내며, 집합주체의 지속과 미완성이라는 두 성격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락산』의 성취는 지역의 언어와 지명을 호출하여 4·3의 말하기를 제주 내부의 발화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는 데 있다. 동시에 표제와 주석이 열어 놓은 지역 명명 정치가 본문에 이르러 제주적 복합성과 구체적 질감으로 확장되기보다, 민족·해방 서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조직된다는 한계도 함께 드러낸다. 이러한 구성은 앞선 이산하의 『한라산』이 집합주체를 선취된 정치적 주어로 제시하는 방식과 접점을 이루면서도, 『한락산』에서는 그 선취가 제주적 명명과 지역적 공간 배열을 경유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이 작품은 지역 명명 정치라는 성취를 보여주면서도, 그 가능성을 민족해방 서사의 강한 틀 안에서 운용하는 과도기적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 3) 김경훈 『제주상사화』: 개인 서사와 공동체 표상의 재구성

김경훈의 『제주상사화』<sup>22)</sup>는 2012년,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현 재화한 『강정은 4·3이다』와 불과 한 달 시차를 두고 출간된 4·3장편서사시집이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공표와 대통령 사과 이후 2008년

22) 김경훈, 『제주상사화』, 각, 2012.

평화기념관 개관·평화재단 출범을 거치며 4·3은 공식적으로 ‘국가폭력’의 성격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발과 ‘4·3항쟁화’에 대한 거센 저항이 다시 고개를 들던 시기이기도 했다. 여기에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2012년 구럼비 폭파와 강정 해군기지 ‘적법’ 판결 등, 미군·국가 안보 담론과 맞물린 일련의 사회 갈등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4·3은 ‘과거사 청산’의 이름으로 매듭지어진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투쟁을 비추는 거울로 소환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주상사화』의 형식적 선택이 갖는 의미가 부각된다. 화해·상생·평화 담론이 4·3을 ‘이미 극복 과정에 들어간 과거사’로 안정화하려는 국면에서, 집합주체를 발화의 출발점에서 선취하는 방식·이산하와 김명식이 공유했던 전략은 제도화된 기억의 언어 속으로 포섭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집합주체가 이미 역사적으로 호명되고 추모의 대상으로 제도화된 상황에서, 그 주체를 다시 한번 ‘우리’로 선취하는 발화는 항쟁의 급진성을 갱신하기보다 기념의 문법 안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경훈은 이 문제 앞에서 집합적 ‘우리’를 먼저 전면에서 세우기보다, 구체적인 인물의 삶과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운명을 서사화함으로써, 4·3을 제도화된 기억의 언어가 포착하지 못한 생활세계의 질감과 정동의 층위에서 다시 호출한다. 시집은 ‘해방-3·1-4·3-5·10-봉쇄-학살-최후-결사’의 연대기적 배열을 취하면서도, 제주공동체의 삶과 파괴, 사랑과 돌봄, 저항과 상실을 교차시킴으로써 4·3을 오늘의 윤리적 질문으로 다시 호출한다.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명준, 윤성필, 윤순이, 윤치백, 쇠테우리, 빨래기아지망, 박현식 등 여러 인물을 내세우고, 이어 장별 구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각 인물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와 선택을 대표하며, ‘제주민중’이라는 추상적 집합명사를 선행하는 얼굴들로 서사의 전면

등장한다. 특히 이명준은 일본군 학병 출신으로 귀향한 뒤 교사로 일하고, 학교를 세우며,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윤순이와 사랑을 키워가다가 끝내 입산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인물이다. 이명준의 경로는 정치적 주체가 단번에 선언되는 구조와 거리를 두고, 생활세계 안에서 형성된 인물이 점차 공동체의 가치와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공동체 표상은 익명의 지향을 담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제주상사화』의 서사시적 특징이 드러난다.

같은 시간, 민주청년회 현판식이 열린다/ 이명준이 교육부장으로 선  
입된다/ “우선 학교부터 새로 지읍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  
니다./ 결궁을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있는 만큼 부조를 받으시다  
/ 우린 많이 배우지 못했수다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26쪽)

쇠테우리가/ 빨래기아지망의 통시에서/ 거름을 내려고 한다/ 아지망  
은 계속 일을 보고 있다/ (...) / 통시는 자연이다/ 사람이 배설하면/ 돼  
지가 그걸 먹고/ 돼지가 배설한 똥은/ 짚과 섞여 그대로 거름이 된다/  
자연의 순환고리다/ 저절로 자연이 된다/ 통시는 자연이다 (28쪽)

이명준의 공동체성은 학교와 교육의 장면에서 먼저 드러나는데, 여기서 학교는 지식 전달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자기 미래를 조직하는 장소로 제시된다. 결궁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학교를 짓는 과정은 공동체의 연대가 생활의 차원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명준은 그 과정의 중심에서 공동체의 희망과 지향을 매개하는 인물로 자리 잡는다. 이때 그의 정치성은 공동체 재건의 실천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얻는다. 그리고 작품 속 제주는 오름과 바다, 학교와 병원, 통시와 결궁, 해녀의 노동과 마을의 수다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특히 빨래기아지망의 통시 장면은 제주적 생활양식의 밀도를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통시는 자연의 순환 속에 놓인 생활의 일부로 묘사되며, 마을과 마을 사이, 산과 바다 사이를 잇는 길목에 자리한 장소로 나타

난다. 이때 공동체의 삶은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고유한 리듬과 감각을 지닌 세계로 재현된다. 따라서 4·3은 항쟁과 학살의 역사에 더해 그 폭력에 의해 파괴된 생활세계의 질감까지 불러들이며, 공동체 표상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구체성을 토대로 설득력을 획득한다.

윤순이는 공동체의 표상을 한층 입체적으로 만든다. 그는 생명의 유지와 돌봄의 윤리를 담당하며, 이후 부상자와 피신민을 돌보는 일을 통해 공동체의 상처를 감당하는 위치로 옮겨간다. 이명준이 실천적·정치적 지향을 담지한다면, 윤순이는 돌봄과 회복, 애정과 기억의 축을 맡는다. 『제주상사화』의 공동체는 남성 전사의 행위에만 집중되지 않고, 교육과 조직, 간호와 돌봄, 사랑과 기다림이 함께 정동적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 점은 앞선 두 작품이 집합주체를 구성하는 방식과 차이를 이룬다. 『한라산』과 『한락산』에서 ‘우리’가 주로 전사·민중·혁명주체의 언어로 명명되었다면, 『제주상사화』에서 공동체는 돌봄과 사랑, 노동과 기다림의 관계망 속에서 비로소 감각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이명준과 윤순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상사화’의 이미지는 이러한 정동 구조를 압축하는 핵심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꽃 이름 알아요?”/ “게메...?”/ “이거 나리꽃 중의 하나인데, 제주 상사화라고 해요/ 잎이 돌아 마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얘기한대요.”/ (...) / “꽃이라. 꽃이엔 허믈 아명해도 복수초가 낫지 않힐 건가./ 눈 속에서 피는 거. 그 추운 디서 피어나는 거.”  
(123쪽)

잎과 꽃이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설명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만나지 못한 시간과 유예된 삶을 상징한다. 여기에 이명준이 눈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를 떠올리며 생명의 이미지를 겹쳐 놓을 때, 상사화는 개인적 감정의 표식에 머물지 않고 폭력 이후에도

지속되는 공동체의 지향을 담아내게 된다. 서시의 구절, “목숨 건 사랑이 있어/ 상사화 피었네/ 피와 살과 뼈로 거름이 된/ 그 터 위에/ 상사화 피었네”까지 고려하면, 상사화는 학살과 수난의 흔적 위에 피어난 꽃이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동체의 시간을 향해 열려 있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즉, 상사화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표지이면서 그 희생이 지향했던 삶의 방향을 현재로 불러오는 매개가 된다. 따라서 꽃의 이미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정동과 더불어,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의 지향을 압축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상사화』에서 상사화는 만나지 못한 사랑, 유예된 공동체, 그리고 상실 이후에도 이어지는 기억의 정동을 함께 감싼다.

이러한 현재성은 해방 장면의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1장 「해방」은 미군정 포고문을 삽입하고, 미군 고문관이 ‘인권’과 ‘민주화’의 언어를 공허한 수사로 취급하며 힘의 질서를 예비하는 장면을 배치한다. 작품은 1945년의 문서 언어를 단순한 사료 인용에 그치지 않고, 해방 직후의 질서가 이후 제주를 지배하게 될 폭력의 문법과 맞닿아 있음을 드러낸다. 그 결과 해방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며, 4·3을 관통할 점령과 통제의 언어를 품은 출발점으로 재구성된다. 『제주상사화』는 과거 사건을 고립된 역사적 단면으로 제시하는 대신, 현재의 문제를 비추는 기원으로 다시 배열한다. 이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와 4·3을 연결하는 동시대적 문제의식과 맞물리며, 4·3이 ‘이미 해결된 과거사’로 안정화되는 것에 저항하는 발화의 방식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명준과 윤성필의 대비는 작품의 갈등 구조를 강화하는데, 두 인물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해방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이명준이 학교와 청년 조직,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윤성필은 청년단과 경찰의 편으로 이동한다. 이 대립은 사적 감정의 충돌을 넘어, 제주 공동체 내부에서 갈라진 두 역사적 방향을 포상한다. 이명준은 공동체의 존립과 윤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는 반면, 윤

성필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의 편에 점차 위치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중심은 갈라진 공동체의 풍경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가치가 공동체의 정당한 표상으로 남는가를 서사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또한 앞선 두 작품에서 드러난 ‘우리’와 ‘그들’의 대립 방식과 차별된다. 『제주상사화』에서의 공동체 내부의 분열은 구체적인 인물의 삶과 선택의 역사 속에서 감각되는 균열로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명준의 입산 이후 서사는 개인이 공동체를 표상하는 인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귀향, 교육, 사랑, 갈등, 입산, 최후에 이르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는 제주 공동체의 가치와 상실, 해방을 향한 지향을 몸에 지닌 인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개별 생애의 종결이라기보다 공동체를 지탱하던 가치와 정동이 소멸을 통과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제주상사화』의 공동체는 익명적 집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체적으로 감각되고 기억되는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작품 말미의 「최후」와 「결시」는 이러한 구조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다. 패배와 학살, 산속의 추위 속에서 이명준과 윤순이는 끝내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작품은 죽음을 비극적 절정의 순간으로만 밀어붙이지 않는다. “정지한 윤순이 위에도/ 눈이 하염없이/ 쌓이고 덮”이는 느린 장면, 그리고 “어린 시절 이명준이 다정하게 글을 가르쳐 주던 기억”, “병원에서의 입맞춤의 기억”, “상사화 그 애절한 꽃 위로도/ 눈이 내린다”는 회상과 겹쳐 제시되는데, 여기서 눈은 죽음의 은폐와 동시에 기억 위에 덮이는 차가운 막이기도 하며, 과거의 시간들이 녹아 현재로 드러나는 매개이기도 하다. 그래서 눈이 만들어내는 정조는 단선적이지 않다. 설원의 침묵, 사랑의 회상, 혁명적 신념, 그리고 “그렇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했던 것이었군요”라는 뒤늦은 이해가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속도와 무게로 서사에 남는다. 이어지는 복

수초의 이미지는 이러한 지속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눈을 뚫고 올라오는 복수초는 죽음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징후이자, 희생을 통과한 뒤에도 끝내 포기되지 않는 공동체의 꿈을 가시화한다. 작품이 “꽃/ 한 몸 저리 다 바쳐야/ 다시 태어나는가/ 저리도 처연히 새 세상 꿈꾸는가”라고 물을 때, ‘새 세상’은 이미 도래한 질서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이들의 희생 속에서 예감되고, 상사화와 복수초의 형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남는다. 따라서 『제주상사화』의 결말은 공동체의 기억과 지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정동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직된다.

결시의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라 / 순결한 조국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 죽창천 내 손에 시퍼렇게 / 살아있는데”라는 선언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다짐은 과거의 희생을 설원 속 죽음과 상사화, 복수초, 폭사의 장면들을 통과한 뒤에도 끝내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의 윤리적 지향을 현재형으로 호출한다. 그리하여 『제주상사화』는 패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사랑, 그리고 아직 완수되지 않은 삶의 가능성을 한 인물의 서사와 공동체의 상실 위에 함께 남겨 놓는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상사화』의 형식적 전환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짚을 수 있다. 화해·상생·평화 담론이 4·3을 제도적 언어 속에 안착시키고 집합주체를 추모의 대상으로 박제하려는 국면에서, 이 작품은 개인 서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그 포섭에 저항한다. 또한 『제주상사화』의 핵심은 제주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응집된 서사를 구성하면서, 이명준이라는 개인이 그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어떻게 담지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교육과 사랑, 돌봄과 노동, 입산과 최후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개인을 공동체의 표상으로 형성하는 서사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전략은 4·3장편서사시가 제도화 이후에도 비판적 잠재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제주상사화』는 4·3장편서사시가 항쟁의 주체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

며, 이 형식이 여전히 현재형 장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 3. 마무리: 발화 형식의 차이와 문학사적 함의

본고는 제주4·3장편서사시를 기억과 추모를 중심으로 읽어온 기존의 경향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 작품이 4·3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하며 그 과정에서 항쟁의 주체를 어떻게 전제하고 형성하며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편서사시를 사건 재현의 형식이 아니라, 말하기의 조건과 집합적 ‘우리’의 위치를 조직하는 발화의 장으로 파악하고, 이산하의 『한라산』, 김명식의 『한락산』, 김경훈의 『제주상사화』를 각각 선취, 지속, 재구성이라는 범주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한라산』, 『한락산』, 『제주상사화』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발화 구조를 드러낸다. 『한라산』은 헌사와 서시, 정동의 역할, 그리고 반제·민족해방의 역사 프레임을 통해 집합주체를 발화의 출발점에서 강하게 선취하는 텍스트로 읽힌다. ‘우리’는 개별 인물의 서사적 축적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기보다, 혁명전사와 민족해방의 주체로 먼저 호출된 채 서사를 이끌며, 판본의 변화를 거치더라도 이 발화 구조의 기본 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한락산』은 표제와 주석을 통해 제주 내부의 언어를 전면에 세우며 지역 명명 정치를 수행하지만, 본문에서는 여전히 민중·민족·해방의 집합서사 속에서 선취된 집합주체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제주상사화』는 집합적 ‘우리’를 먼저 명명하기보다, 이명준과 윤순이의 삶, 교육과 돌봄, 사랑과 상실의 궤적을 따라가며 공동체 표상을 재구성하는 형식적 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세 작품의 차이를 발화 방식의 변화로만 정리하는 것은 충

분치 않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차이가 각 시대의 담론 조건 속에서 4·3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 과정을 반영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이 쓰인 1987년, ‘공산 폭동’이라는 국가의 명명이 지배하던 조건에서 4·3을 ‘항쟁’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담론 체계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행위였다. 『한라산』이 쓰인 1992년은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에도 4·3을 둘러싼 공적 말하기의 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했다.<sup>23)</sup> 이 조건 속에서 ‘한라산’이라는 지역어로 표제를 세우고 ‘민중’의 언어로 발화의 주체를 조직하는 것은, 제도적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먼저 말하기를 조직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4·3을 ‘민중항쟁’으로 명명하고 그 발화 자리를 제주 공동체의 언어 위에 세우는 이 텍스트는, 공적 진리 체계의 외부에서 스스로의 주체어를 선행적으로 확보하려 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제주상사화』가 출간된 2012년은, 4·3이 국가 차원의 공식 언어로 제도화되고 화해·상생·평화를 표방하는 기념 담론이 공고화되는 국면이었다. 동시에 서귀포 강정에서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장기적인 저항 운동이 정점에 달하며 4·3의 트라우마와 억압 경험이 다시 ‘현재적 사건’으로 재작동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제주상사화』가 집합주체를 선취하는 방식의 발화를 피하고 ‘집합·개인·공동체 표상’ 재구성에 방점을 둔 것은, 기념의 문법에 포섭되기 쉬운 공식 4·3 기억을 피하며, 제도화된 기억이 포착하지 못한 생활세계의 질감과 정동의 층위를 통해 4·3을 다시 불러내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이처럼 세 작품의 발화 전략 차이는 각 시대가 4·3에 대해 ‘무엇을

23) 예로 1990년 2월 방영 예정이었던 KBS 다큐멘터리 <해방과 분단: 제주 4·3 전후>는 방송 직전 불방 결정을 받아 영상본만 남긴 채 방영되지 못했다. 같은 시기 4·3 추모제 역시 하나의 공적 장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1992년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와 4·3유족회가 탐동광장과 신산공원에서 각각 분리 개최하며 도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의 4·3은 방송과 기념이라는 제도적 장 안팎에서 분절과 분열을 반복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었으며, 공적 언어의 장에서 완전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말할 수 있었는가'의 차이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항쟁의 의미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둘러싼 문학적 응전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4·3장편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는 하나의 주제를 반복해서 기억하는 기념의 역사가 아니라, 담론 환경의 변화에 맞서 항쟁 발화의 조건을 끊임없이 재사유하고 갱신해 온 실천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장편서사시의 위치에 대한 사유로 연결된다. 장편서사시는 1990년대 이후 거대 서사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며 시단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이야기를 조직하는 욕망은 소설과 영상 매체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제주4·3 시문학에서 이 형식이 예외적으로 계승·갱신되어 온 것은, 4·3이라는 소재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었다. 장편서사시가 자유시의 리듬 위에서 역사적 사건과 집합적 목소리를 장편 구조로 조직할 수 있는 형식적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으며, 나아가 이 형식이 담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화 전략을 갱신하며 각 시대가 포착하지 못한 경험과 시간을 불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편서사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발화 방식의 변형이었으며, 이 변형의 역사가 곧 제주4·3장편서사시의 문학사적 성취를 구성한다.

4·3 기억정치의 차원에서도 이 세 작품의 차이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한라산』의 선취된 집합주체는 항쟁의 정당성을 강하게 선언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복잡성과 개인의 곁을 압축하는 대가를 치른다. 『한라산』의 지역 명명 정치는 4·3의 말하기를 제주 내부의 발화 자리로 되돌려 놓는 성취를 이루지만, 그 가능성을 민족해방 서사의 틀 안에서 운용하는 한계도 함께 드러낸다. 『제주상사화』의 개인 서사는 공동체의 생활세계와 정동의 구체성을 살려내지만, 집합적 저항의 에너지를 개인의 서사적 성장으로 분산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이 긴장들은 4·3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무언가를 포착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놓치는 과정임을 보여주며, 그 놓친 자리에서 새로운 발화의 필요성이

다시 생겨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4·3장편서사시는 4·3 담론의 제도화 이후에도 비판적 잠재력을 유지하는 장르로 기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보고서와 기념 담론이 4·3을 특정한 과거로 위치시키고 기억의 방향을 안정화하려 할 때, 장편서사시는 그 안정화에 저항하며 4·3을 현재의 윤리적·정치적 질문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 열림은 장편서사시가 여전히 현재형 장르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이자, 한국 현대시가 역사와 정치를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 이 형식이 다시 참조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4·3장편서사시의 실천은, 문학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화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가장 집요하게 증명해 온 사례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이산하, 「한라산」, 『녹두서평1』, 도서출판녹두, 1987.  
\_\_\_\_\_, 『한라산』, 시학사, 2003.  
\_\_\_\_\_, 『한라산』, 노마드북스, 2018.  
김명식, 『한라산』, 신학문사, 1992.  
김경훈, 『제주상사화』, 각, 2012.

### 2. 단행본

- 강인철, 『민중, 저항하는 주체-민중의 개념사, 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김준오, 『현대시의 방법론과 모더니티』, 새미, 2009.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2015.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_\_\_\_\_,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_\_\_\_\_,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2023.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박선영 엮음, 박종우 옮김, 『민중의 시대』, 빨간소금, 2023.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폴 리콥르, 변광배·정종윤 옮김, 『폴 리콥르, 비판과 혁신』, 그린비, 2013.

### 3. 논문

-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제주4·3

연구소, 2005, 346-372쪽.

권혁웅, 「시의 이야기와 소설의 이야기-현대시에서 이야기가 구현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0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4, 9-35쪽.

김동윤, 「이산하 서사시 「한라산」 연구」,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391-414쪽.

문지희, 「이산하 시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사유-「한라산」에서 『악의 평범성』으로」, 『인문학연구』 제4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6, 295-331쪽.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70-199쪽.

장은영, 「서사시에 나타난 ‘민족’ 형상화에 관한 비교 연구-고은의 『백두산』과 리옥의 『고향 사람들』, 『풍운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5집, 비교문화연구소, 2011, 338-360쪽.

<Abstract>

Enunciative Strategies and Insurgent Subject  
Formation in Jeju 4·3 Long Narrative Poetry

Kim, Yeon\*

This article reexamines the prevailing tendency to read Jeju 4·3 long narrative poems primarily as representations of memory and mourning, and investigates how each work articulates Jeju 4·3 while presupposing, shaping, and reconfiguring the subjects of resistance in the process. To this end, it approaches the long narrative poem not merely as a form of event representation, but as a discursive site that organizes the conditions of utterance and the position of the collective “we.” The analysis focuses on Lee San-ha’s 『Halla San』, Kim Myeong-sik’s 『Hallak San』, and Kim Gyeong-hun’s 『Jeju Sangsahwa』.

The analysis shows that 『Halla San』 preempts the collective subject at the very point of enunciation and accelerates the narrative of resistance; 『Hallak San』 sustains the collective subject by repositioning the site of speaking through a politics of regional naming; and 『Jeju Sangsahwa』 reconfigures the representation of community by mediating it through individual narratives. These works, therefor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group of texts that repeatedly recount the same historical event, but as historical practices that have adjusted the meaning of resistance and the shape of its subjects through distinct enunciative strategies within changing discursive environments and

---

\* Jeju National University.

memory politics. In this sense, this article seeks to reposition Jeju 4·3 long narrative poetry with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and to illuminate the literary dimension of Jeju 4·3 memory politics.

Key Words: Jeju 4·3, long narrative poetry, insurgent utterance, subject formation, collective subject, representation of community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18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20일